

『양평 소나기 마을』 조성 계획 (안)

- 대단위 관광지 개발이 어려운 우리 군 여건상, 소규모 체류형 관광지 다수 개발이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됨
-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선생이 23년간 재직한 경희대학교와 공조체제 구축
- 수십년 간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범국민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테마로 마을 단위의 문화관광지 개발
- 외형 이미지는 “문학”으로 내용은 민박을 통한 농촌 생활 체험
- 다만, 소설 속에서 ‘양평’ 부각 부분이 미흡하여, 소설 무대가 양평임을 공인 받고 대외에 널리 알리는 사전작업이 전제되어야 함
 - * 다만, 관내 서종면 노문리 일대에, 갈밭마을, 서당골 등 소설 속 지명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경관이 빼어난 20-30호 내외의 작은 마을을 우선 선정, 사업결과에 따라 관내 유사한 환경의 마을에 단계적으로 확산

□ 배경 및 목적

- 주요 군정인 쾌적한 쉼터 실현
- 명문대학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 주 5일 근무제도에 따른 수도권 대상 체류형 관광지 개발
- 지역주민의 직접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개요

- 소설 ‘소나기’에 등장하는 배경을 복원, 문화관광자산화
- 소나기의 작가 故황순원 선생이 23년 간 재직한 경희대학교 교수진을 중심으로 유족과 제자문인들의 협조 하에 사업추진
 - *대외 공인 획득 및 언론, 문학계 등의 관심집중을 위한 필수사항

- “소나기 마을”에 “황순원 문학마을” 기능을 보강, 변별화된 이미지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하되, 우리 군의 기존 관련 사업(생태마을조성, 취락구조 개선사업, 녹색마을·산촌마을 조성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조성 및 예산확보 문제 사전 방지 효과를 꾀함

□ 사업추진 계획

△ 1단계 (2003. 4월~9월) ----- 소요예산 10,000천원

(사전 정지 작업)

- 경희대 교수진과 문화공보과의 공조체제로 추진위원회 결성
 - * 관내 문인협회는 의견 제시 수준에서 참여
 - * 모든 결정과 추진은 위 위원회에 전권 위임
- 바람직한 ‘소나기’마을 조성 및 홍보 방안 모색
- 일부에서 주장하는 원덕리가 소설의 무대라는 증거는 미약함 따라서,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마을 선정 필요
- ※ 원덕리는 입지조건, 관광객 체류 조건 등이 매우 미흡함

(마을 선정 작업)

- 소설 속의 배경과 부합되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
- 체류형 민박 마을로서 조성이 용이한 주변환경 여부
- 약재·특용작물 재배가 용이한 지역
- 주민들의 의지와 협동심이 뛰어난 지역

(“소나기마을” 조성계획 장소에서의 문학행사)

- 국내 문학계의 영향력이 지대한 평론가·문인들과 공조
- 황순원을 존경하는 유명 문학인이 매우 많으므로, 질적·양적 사업성도 뛰어나며, 중앙언론의 관심집중 가능 (사전홍보효과 극대화)

△ 2단계 ----- 2003년 10월- 2004년 2월

(소나기 마을 조성 세부계획 확정)

- 황순원 문학관을 초가집으로 짓는 등 독창적인 접근방식으로 추진
- 주민들과 연대, 민박·농산물판매·식당 등 지역경제창출 방안 결정
- 우리 군의 기존 관련사업을 연계, 관련 시설 및 환경 개선 및 보강

△ 3단계 (2004년 3월- 2004년 7월) ----- 소요예산 250,000천원

* 특기사항 : 위 예산조달은 경기도의 “문학관 조성사업”을 유치 중당
(조성 사업 착수)

- 소설 속의 배경 복원
 - 징검다리, 원두막, 허수아비, 메밀밭, 갈대밭 등
- 황순원 문학관 설립
 - 소박한 초가집에 유족과 문학계의 협조를 얻어, 유품·관련자료 전시
- “소나기” 연극 제작
 - 관내 연극단체와 공조, 무대가 아닌 마을의 배경을 이동하는 연극을 제작, 정기적인 공연 시행

△ 4단계 (2004년 8월- 2004년 10월) ----- 소요예산 30,000천원

(“소나기 마을” 문화행사)

- 조성 공사 완료 후 대외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목적
- 경희대학교의 문화예술 분야 주축

(문학행사 정례화)

- 소설 속의 계절에 맞춰 초여름에 열리는 맑은물사랑 예술제와 연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양평소나기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
- 매년 작가의 출생·사망일에 적절한 문학행사 병행
- 추후 사업은 진행 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

□ 위 4단계 사업비 ----- 총290,000천원

△ 5단계 (2004년 11월-2006년 10월)----- 소요예산 1000,000천원

(“소나기 마을” 체류형 문화관광단지화)

- 그간의 사업 결과와 황순원선생을 기리는 사업의 중요성을 들어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지원 획득
- 지역 문화 발전 및 바람직한 관광지 조성의 중요성을 들어 경기도로부터 예산지원 획득
- 부족 부분 군 예산으로 충당

△ 6단계 (2006년 11월-지속추진)----- 소요예산 미정

(“소나기 마을”, 국내 대표적 문화관광 자산으로 발전)

- 경희대 보유 인프라를 활용, 주말 문화예술공연 상설화
 - * 관내 문화예술 영역 공조
- 우리 군의 기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경쟁력 강화

□ 특기사항

- 우리 군의 별도사업 즉, 산촌마을 개발, 아름마을 개발, 문화마을 개발 등 유사사업을 ‘소나기마을’조성사업에 집약하므로써 사업 효율 극대화 도모

□ 황순원 (소나기 작가)

- 1915년 평안남도 대동군 출생
- 1921년 평양으로 이사
- 1931년 시 '나의 꿈', '아들아 무서워 말라'를 <동광>에, '묵상'을 <조선중앙일보>에 발표
- 1934년 일본 동경 와세다 제2고등원 입학
- 동경에서 이해랑, 김동원 등과 함께 극예술연구단체인 '동경학생예술좌' 창립하고 첫 시집 <방가> 간행
- 1935년 서울에서 발행하는 <삼사문학>에 동인
- 1936년 와세다 제2고등원 졸업, 와세다 대학 문학부 영문과 입학, 동경에서 발행하는 <창작> 동인
- 1939년 와세다 대학 졸업
- 1940년 단편집 <늪> 간행
- 1957년 경희대 문리대 교수로 취임,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
- 1985년 <황순원 전집>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완간
- 1987년 제1회 인촌상 문학부문 수상, 예술원 원로회원에 추대
- 2000년 사망

※ 대표작 : 소나기, 나무들 비탈에 서다, 학 잃어버린 사람들

경희대학교 [慶熙大學校 , Kyunghee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回基洞)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

구분 : 사립 종합대학

개교연도 : 1949년

설립자 : 조영식

소재지 : 서울캠퍼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수원캠퍼스 경기 용인시 기흥읍

교훈 :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교화 : 목련

상징동물 : 사자

교지면적 : 156만 2244m²

교수 1인당 학생수 : 21.5명(2001)

전임교원수 : 837명(2001)

학생수 : 2만 1,462명(2001)

장서량 : 72만여 권(2001)

이색학과 : 아동주거학과, 호텔경영학과, 한방병원경영과, 의료정책과 등

본문

1949년 배영대학관(培英大學館)과 신흥(新興)전문학교를 합병하여 신흥초급대학으로 설립하였다. 6·25전쟁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1951년 조영식(趙永植)이 인수한 후 4년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고, 1953년 현 교지를 확보하였다. 1955년 문리과대학·법과대학·정경대학·체육대학의 4개 단과대학을 가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고향재단으로 재단명칭을 바꿨다. 1958년 대학원 박사과정을 설치하고, 1960년 경희대학교로 개칭하였다.

1965년 동양의과대학을 합병하고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을 신설하였으며, 1966년 경희간호전문대학과 경영행정대학원을 설립하였다. 1972년 교육대학원, 1973년 경희호텔전문대학원, 1979년 수원캠퍼스 신설을 인가받았다. 1980년 행정대학원, 1983년 평화복지대학원, 1987년 산업정보대학원, 1988년 신문방송대학원, 1993년 체육과학대학원을 설립하였다.

2001년 현재 15개 대학원에 서울캠퍼스는 11개 단과대학, 10개 학부(31개 전공), 18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캠퍼스는 6개 단과대학, 8개 학부(36개 전공), 12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부설 연구기관으로 동서의학연구소, 태양에너지연구소, 한국조류연구소, 한국체육과학연구소, 경희한약연구소,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조사연구소, 도시건축연구소, 민속연구소, IAUP부설 국제평화연구소, 인류사회재건연구소 등이 있다. 그밖에 자연사박물관, 사회산업교육원 등이 있다.

서울캠퍼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回基洞) 1번지, 수원캠퍼스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器興邑)에 있다.

황동규[黃東奎] 오픈백과사전 인쇄용화면

참조항목

- 한국문학
- 조그만 사랑노래
-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 즐거운 편지

분류

인물 > 문학 > 한국문학
역사와 지리 > 역사 > 한국사 > 현대
지역 > 아시아 > 북한 > 평안남도 > 숙천군
인물 > 수상자 > 한국상과 훈장

요약

한국의 현대시인.

본관 : 제안

국적 : 한국

활동분야 : 문학

출생지 : 평남 숙천

주요수상 : 현대문학상(1968), 한국문학상(1980), 대산문학상(1995), 제2회

주요작품 : 《즐거운 편지》 《조그만 사랑노래》 《삼남에 내리는 눈》

본문

본관은 제안(濟安)이다. 세련된 감수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서정의 세계를 노래해 문학엘리트와 대중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견시인이다. 1938년 평안남도 속천(肅川)에서 소설가 황순원(黃順元)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1946년 가족과 함께 월남해 서울에서 성장했다. 1957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영어영문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66~1967년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1968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강의했다. 1970~1971년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연구원으로 수학했으며, 1987~1988년 미국 뉴욕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2002년 현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58년 서정주(徐廷柱)에 의해 시 《시월》 《동백나무》 《즐거운 편지》가 《현대문학》에 추천되어 시인으로 등단했다. 초기에는 대표적인 연시 《즐거운 편지》를 비롯해 첫시집 《어떤 개인 날》(1961)에 실린 연작시 《소곡》과 《엽서》 등 사랑에 관한 서정시가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사랑과 미움으로 정형화되어온 전통적 연애시의 정서와는 달리 신선한 정념의 분위기를 형상화한 시인 특유의 독특한 연가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어 두번째 시집 《비가(悲歌)》(1965)에서는 초기 시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수용의 자세와는 달리 숙명적 비극성을 담백하게 받아들여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좀더 성숙한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1966년 정현종(鄭玄宗) 등과 함께 동인잡지 《사계》를 발행했다.

1968년 마중기(馬鍾基), 김영태(金榮泰)와의 3명의 공동시집 《평균율 1》을 출간하고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열하일기》 《전봉준》 《허균》 등의 시를 비롯한 이 시기 이후의 시에서는 연가풍의 애상적인 분위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의 모순을 역사적·고전적 제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보여 시적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로 이어져 모더니즘으로 자리잡았으며, 시집 《나는 바퀴

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1978)에서 더욱 확실히 나타난다.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노래한 《계엄령 속의 눈》 등의 사회비판시는 예각적인 상황의식을 표출하기보다는 암시와 간접화의 표현법을 사용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한차원 높게 작품화한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이어 나온 시집 《악어를 조심하라고?》(1986)에서는 작가의 독특한 시법인 극서정시의 실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95년 《현대문학》에 연작시 《풍장 70》을 발표함으로써, 1982년 《풍장 1》을 시작으로 14년에 걸쳐 죽음이라는 주제를 계속적으로 발표해 문단의 화제가 된 연작시를 마감했으며, 이 연작시는 시집 《풍장(風葬)》(1995)으로 발행되었다. 시인의 죽음관을 엿볼 수 있는 이 시집은 독일어판으로도 출간되었다.

새로운 변화를 시적 생명력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시인은 이순을 넘긴 나이에든 개성적인 극서정시와 장시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문단의 귀감이 되고 있다. 현대문학상(1968), 한국문학상(1980), 연암문학상(1988), 김종삼문학상(1991), 이산문학상(1991), 대산문학상(1995), 미당문학상(2002) 등을 수상했다.

저서에 시집 《열하일기》(1972), 《삼남에 내리는 눈》(1975), 《견딜 수 없이 가벼운 존재들》(1988), 《물운대행》(1991), 《미시령 큰바람》(1993), 《외계인》(1997), 《버클리풍의 사랑노래》(2000) 등이 있다. 이밖에 시론집 《사랑의 뿌리》(1976)와 산문집 《겨울노래》(1979), 《나의 시의 빛과 그늘》(1994), 《시가 태어나는 자리》(2001), 《젖은 손으로 돌아보라》(2001) 등이 있다.